



홍국평 | 서울장신대

1. 서론

앗시리아에 의해 사마리아가 멸망한 후(기원전 722/1년) 일군의 북이스라엘 난민이 예루살렘으로 피난하였다는 가설은 지난 수십 년간 구약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²⁾ 본래 있음직한 추론에 불과했던 이 가설은 1969년부터 예루살렘에서 진행된 고고학적 발굴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1) 본고는 2010년 3월 16일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 있었던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서부지역 모임(WECSOR)에서 "Rethinking Northern Refugees"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것을 수정하고 다듬은 것임을 밝힌다.

2) 방대한 목록을 여기서 다 소개할 수 없기에 두 분야를 대표할 만한 최근 자료 둘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John Joseph Collins, *Introduction to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2004), 61; Yigal Shiloah, "Jerusalem", *The New Encyclopedia of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 the Holy Land* (vol. 2;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 Carta, 1993), 704. 보다 자세한 문헌 정보를 위해서는 Philippe Guillaume, "Jerusalem 720-705 BCE: No Flood of Israelite Refugees", *Scandinavian Journal of the Old Testament* 22 (2008), 196을 보라.

연게 되었다. 이 예루살렘 발굴에서 아비가드(N. Avigad)는 기원전 7-8세기 경, 즉, 히스기야 시대 즈음에 예루살렘 도성의 크기가 급격히 확장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였고,³⁾ 학자들은 주저 없이 북이스라엘의 난민의 유입으로 인한 인구 증가를 예루살렘 확장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⁴⁾ 이후 성서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공히 북이스라엘 난민의 유입을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로 여기기에 이르렀다. 한 저명한 신명기 주석가가 “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루살렘 유입은 이제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기원전 8세기 말 예루살렘은 유래 없는 확장을 경험한다 ... 이러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이스라엘 멸망 후 이스라엘인들이 그들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남쪽 지방으로 유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⁵⁾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 사실 신명기와 같이 남과 북의 전승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본문의 주석가에게 이 가설은 매우 유용하다. 어떻게 북이스라엘에서 기원했을 원신명기가 혹은 신명기 신학이 남유다로 전수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있어 북이스라엘 난민들이 자신들의 전승을 유다로 가져왔다는 가설만큼 효과적인 설명은 없기 때문이다. 북이스라엘 난민 가설의 이러한 매력은 비단 신명기의 기원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승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구약 문헌의 역사를 해결하는 실마리의 역할을 한다. 이를테면 엘로힘 문헌이나 호세아와 같은 예언 문헌과 신명기적 역사의 한 축을 이루는 엘리야-엘리사 전승 등은 모두 북이스라엘에서 기원하였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성서 문헌의 형성사(composition history)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북왕국 난민 가

3) 이 발굴의 최종 보고서는 최근에 이르러 출간되었다. Hillel Geva (ed.), *Jewish Quarter Excavations in the Old City of Jerusalem: Conducted by Nahman Avigad, 1969-1982* (vol. 1;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00).

4) 이 점에는 이스라엘 학자 브로쉬의 논문의 영향이 지대하였다. Magen Broshi, “Expansion of Jerusalem in the Reigns of Hezekiah and Manasseh”, *Israel Exploration Journal* 24 (1974), 21-26.

5) Moshe Weinfeld, *Deuteronomy 1-11: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York: Doubleday, 1991), 50-51.

설이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하지만 가설의 효용성이 가설의 신빙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가설의 신빙성은 일차적으로 그 자체의 근거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직접적 근거인 구약 성서 본문은 북이스라엘 난민의 유입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신명기적 사가는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거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되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증언한다.(왕하 17:5-6, 24-25) 그러나 어디에도 난민 중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유입되었다는 언급은 없다. 물론 성서의 기사가 모든 사건을 다 기록했어야 할 이유는 없고, 따라서 기록의 부재가 사건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⁶⁾ 하지만 이토록 신학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성경 전체가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최근 몇몇 학자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확장되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북이스라엘 난민의 유입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글은 북왕국 난민의 유입 여부를 역사적, 고고학적으로 고증하려는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북왕국 난민 유입 가설이 성서의 형성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이 가설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그 불확실성이 성서의 형성사의 제이론에 어떤 함의를 던져주는지에 집중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난민의 유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북이스라엘 난민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된 결과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남유다인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6) 유윤중, “고대 이스라엘 역사 찾기와 고고학: 수정주의자와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4집 (2004년 7월), 122.

2. 고고학적 증거

우선 북이스라엘 난민 유입 가설의 직접적 근거로 여겨지는 예루살렘 성벽의 확장에 대해 살펴보자. 예루살렘을 발굴하는 이 흔치 않은 기회는 사실 1967년 6일전쟁으로 예루살렘이 피해를 입으면서 생겨나게 되었다. 해당 지역을 재건하게 되었고, 재건에 앞서 이미 파괴된 지역에 대한 고고학 발굴을 승인받게 되었던 것이다. 발굴을 시작하자마자 제1지구에서 예상치 못한 큰 발견이 나와 학계와 대중의 관심을 일순간에 사로잡았다. 총길이 65미터, 너비 7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성벽이 발견된 것이다.⁷⁾ 이 성벽이 제1성전기의 것인지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사실 이 성벽이 그토록 오래된 성벽일 것이라 예상한 학자는 드물었다. 그러나 성벽을 둘러싼 층위(stratigraphy)가 점차 밝혀지면서 고고학자들은 마침내 이 성벽이 히스기야 시대에 축조되었음을 밝혀냈다.⁸⁾ 이 지구(Area A)에 아홉 개의 층이 발견되었는데 이 중 가장 오래된 세 개의 층(9-7)이 철기2시대에 속한다.⁹⁾ 발굴대장에 “W.555”로 표기된 “넓은 성벽”(the broad wall)은¹⁰⁾ 기원전 8세기 말 히스기야 시대로 판단되는 제8층에서 발굴되었다.¹¹⁾ 이 성벽이 포로기 이전 제1성전기에 세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이 시기에 예루살렘이 이미 큰 확장을 경험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시 유다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획기적인 의의를 가져다 주었다.¹²⁾

7) Geva, *윇글*, 1, 10, 37, 45, 49 .

8) Nahman Avigad, *Discovering Jerusalem* (Nashville: Thomas Nelson, 1983), 47-48.

9) Geva, *윇글*, 43, 81-82.

10) 처음 이 성벽이 발견되었을 때 이 벽은 “이스라엘 성벽”(the Israelite wall)이라 불렀는데 아비가드는 이 후 이 벽을 느헤미야 3장 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넓은 성벽”과 동일시하면서 “넓은 성벽”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Avigad, *윇글*, 62; Geva, *윇글*, 81.

11) *윇글*, 44.

12) 특별히 이 발견은 예루살렘의 크기에 대한 최소주의와 최대주의 간 논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까지만 해도 포로기 이전 예루살렘의 크기가 현재의 다윗성 너머를 넘지 못했을 것이라는 켈렌(Kathleen

문제는 예루살렘 성벽이 확장되었다는 고고학적 발견과 그 확장이 북이스라엘 난민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주장 사이에 논리적 간극이 있다는 점이다. 후자는 전자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해석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 해석을 처음으로 제공한 학자는 이미 언급한 대로 브로쉬(Magen Broshi)였다. 브로쉬는 우선 예루살렘 성벽이 갑작스럽게 확장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 확장이 난민의 유입 같은 외부적 요소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두 가지 유입의 가능성을 지목한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난민의 유입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원전 701년 산헤립의 유다 침공 시 파괴된 셰펠라(Shephela) 지역의 난민의 유입이다.¹³⁾ 그런데 학자들 대부분은 브로쉬가 제시한 두 번째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북이스라엘 난민의 유입을 당연시 하였다. 예루살렘의 확장이 셰펠라 지역 난민들의 유입과 아시리아 시대의 경제적 성장의 결과 일어난 자연적 성장¹⁴⁾ 등 다른 내부 요인에 의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느슨한 논리는 문제가 있다. 이스라엘 난민의 유입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보다 더 직접적 증거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증거가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외부인의 유입을 물질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원주민과 이주민의 문명이 명백히 이질적일 경우나 가능하다. 하지만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문화적 유사성을 고려할 때 고고학은 이들의 유입을 증명할 만한 적절한 도구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아비가드가 발견한 ‘넓은 성벽’은 예루살렘의 확장을 증명하는 하지만 그 확장의 원인까지 보여주지는 않는다.

Kenyon)의 축소주의 입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는데, 아비가드의 발굴은 적어도 히스기야 시대 어간에 예루살렘은 이미 큰 확장을 이루었음을 증명하게 된 것이다. 이 논쟁에서 아비가드의 발굴의 의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Avigad, 윗글, 27-31.

13) Broshi, 윗글, 25.

14) Nadav Na'aman, "When and How Did Jerusalem Become a Great City? The Rise of Jerusalem as Judah's Premier City in the Eighth-Seventh Centuries B.C.E.,"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347 (2007), 23-24.

3. 북이스라엘 난민 가설의 문제

최근 북왕국 난민 가설을 가장 왕성하게 발전시킨 학자는 텔아비브 대학의 핑켈슈타인(Israel Finkelstein)이다.¹⁵⁾ 그가 난민 가설에 주목하는 이유는 여느 성서학자들과 다르다. 성서학자들이 이를 통해 성서 본문의 복합성을 설명하려 했다면, 핑켈슈타인은 고고학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그의 노력의 일환으로 난민 가설에 관심을 기울인다.¹⁶⁾ 북이스라엘 난민의 유입은 그가 재구성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한다. 그는 최근의 여러 학자들처럼 이스라엘과 유다가 본디 독립적인 개체였다고 가정하는데,¹⁷⁾ 따라서 이후 성서 전승에서 이들을 한 민족으로 이해하는 ‘범이스라엘’ (pan-Israelism) 개념이 언제 어디서 태동했는지를 푸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북이스라엘 난민의 유입은 이 질문을 푸는 열쇠를 제공한다. 북이스라엘 난민이 유입 되면서 이 두 인구층을 융화하는 것이 유다 집권층의 과제로 떠올랐고, 융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남과 북의 역사 전승을 통합(대표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역사)하여 한 민족으로서의 공통분모를 강화하려 하였다 는 것이다.¹⁸⁾ 그 결과 당시 상이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던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하나의 정체성이 태동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그의 적극적인 행보에 같은 학교 역사 분과 소속 나아만(Nadav Na'aman)이 제동

15) 대표적인 예가 Israel Finkelstein and Neil Asher Silberman, *The Bible Unearthed: Archaeology's New Vision of Ancient Israel and the Origin of Its Sacred Texts* (New York: Free Press, 2001), 229-250; "Temple and Dynasty: Hezekiah, the Remaking of Judah and the Rise of the Pan-Israelite Ideology",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0 (2006), 259-285; *David and Solomon: In Search of the Bible's Sacred Kings and the Roots of the Western Tradition* (New York: Free Press, 2006), 134-144.

16) 이러한 그의 꿈은 널리 알려진 그의 대중적 저작 *The Bible Unearthed*의 부제 "Archaeology's New Vision of Ancient Israel and the Origin of its Sacred Texts"에도 잘 드러나 있다.

17) Finkelstein and Silberman, *윗글* (2001), 149-168.

18) 나아만은 이 정책을 "융합정책'(melting pot policy)라 불렀다. Nadav Na'aman, "Saul, Benjamin and the Emergence of 'Biblical Israel' (part 1)",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21 (2009), 214.

을 걸면서 이 둘은 현재 지면을 통해 열린 논쟁을 벌이고 있고,¹⁹⁾ 여기에 다른 학자들이 가세하면서 성서 고고학자와 역사가와 성서학자들 사이의 간학문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²⁰⁾

이 논의들을 여기서 모두 반복할 이유는 없다. 우리에게 핵심 논제는 핑켈슈타인이 브로쉬의 ‘해석’을 입증할 만한 분명한 고고학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에 있다. 그는 브로쉬 보다 훨씬 방대한 고고학적 자료를 통하여 이 확장이 ‘단기간’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이 유례없는 급격한 확장을 자연 발생의 산물로 돌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만일 외계인들이 몰려온 것이 아니라면” 난민의 유입이 확실하다고 주장한다.²¹⁾ 그러나 이 확장의 급작성은 외부의 유입의 가능성을 높이지는 하지만 그 유입의 원천까지 증명해 주지는 못한다. 여전히 그 유입이 북이스라엘에서 기원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미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바로 이 때문에 학자들은 핑켈슈타인이 고고학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과제를 고고학에 지운 격이라 비판한다.²²⁾

19) 논쟁의 촉발점은 나이만(Na'aman, 윗글 [2007])이 핑켈슈타인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발표된 핑켈슈타인과 나이만의 논쟁은 다음을 보라. Israel Finkelstein, “The Settlement History of Jerusalem in the Eighth and Seventh Century BC”, *Revue biblique* 115 (2008), 499–515; Nadav Na'ama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Judah and Jerusalem in the Eighth Century BCE: A Rejoinder”, *Revue biblique* 116 (2009), 321–335; “Saul (Part 1)”, 214; Israel Finkelstein, “Saul, Benjamin and the Emergence of ‘Biblical Israel’: An Alternative View”,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23 (2011), 348–367.

20) 핑켈슈타인의 입장을 가장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은 Guillaume, 윗글이다. 이 외에 산발적으로 제기된 의견으로는, Philip R. Davies, *The Origins of Biblical Israel* (LHBOTS 485; New York: T&T Clark, 2007), 20–24, 142–150; Ernst Axel Knauf, “Bethel: The Israelite Impact on Judean Language and Literature”, Oded Lipschits and Manfred Oeming (ed.), *Judah and the Judeans in the Persian Period*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06), 293–295; Niels Peter Lemche, “Did a Reform Like Josiah’s Happen?”, Philip R. Davies and Diana V. Edelman(ed.), *The Historian and the Bible: Essays in Honour of Lester L. Grabbe* (LHBOTS 530; New York: T&T Clark, 2010), 16–17.

21) Finkelstein, 윗글 (2008), 511.

22) Guillaume, 윗글, 197.

사실 이 시기에 유다가 이스라엘 난민을 받아들였다는 가설은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당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 북왕국 난민이 유다로 건너왔을 것이라는 가설의 근거에는 앞서 바인펠트의 발언에서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형제국’의 난민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가정이 있다. 물론 구약성서는 이 두 나라가 본래 한 피를 나눈 형제 관계로 묘사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두 세기가 넘게 정치적으로 독립된 집단으로 살아왔음도 분명히 보여준다.²³⁾ 정치가 인간사에 끼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우리는 민족상잔의 아픔을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 앞에서 한 민족으로서 역사와 언어와 혈통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마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유다와 이스라엘의 상호관계를 다룰 때 이들 간의 정치적 역학 관계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당시 지중해 연안의 약소국들로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은 결코 자신들의 독립적인 결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변 열강들의 정치적 행보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사실이다. 설사 우리가 이스라엘 멸망 후 형제애가 다시 부상하였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살아남은 유다가 단순한 인정에 사로잡혀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유다는 정치적 집단으로서 자신들에게 가장 유익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북이스라엘 난민이 당연히 그리고 단순히 동족의 품으로 피난하였을 것이라 가정하기 전에,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레반트 지역 전체의 국제정세 속에서 특히 강대국 앗시리아의 위협 앞에서 두 나라가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었는지를 자세히 읽어 낼 필요가 있다.

23) 이런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핑켈슈타인이 난민의 유입에 대해서만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형제국으로 그리는 최종본문의 이상적 모습을 따르는 학자들의 전형적 입장 중 하나인 난민 가설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은 어떤 면에서 의아한 점이다.

이스라엘 멸망 직전 두 나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기원전 734년 사마리아 멸망 10년여를 앞두고 발생한 ‘시리아-에브라임 전쟁’ (Syro-Ephramite War)이다.²⁴⁾ 이 사건은 다가오는 제국 앗시리아의 위협 앞에서 두 나라가 철저히 독자노선을 걸었음을 알려준다. 이스라엘은 앗시리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아람과 반 앗시리아 동맹을 맺었으나, 유다는 동맹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스라엘과 아람은 유다를 위협해 들어오기에 이르렀다(왕하 16:5-9; 사 7장 참조). 이는 단순한 정치적 위협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들의 목표는 다윗 왕조를 전복시키고 꼭두각시(“다브엘의 아들” 사 7:6)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 기록이 어느 정도 역사성을 담지하는가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아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위협을 왕조 전복 시도로 ‘받아들였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앗시리아라는 거대한 제국의 위협 앞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한 피를 물려받았다는 형제국은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유다의 ‘외교적’ 대응과 그 결과이다. 당시 유다의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갔는데, 이는 북쪽에서 침공해 들어온 이스라엘-아람의 연합군뿐만 아니라 남쪽에서 에돔과 블레셋 또한 공격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대하 28:17-18). 사방에서 위협을 받고 있던 유다의 아하스는 가만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이사야의 급진적 예언(사 7장)을 따르지 않고 앗시리아에 원조를 요청한다.²⁵⁾ 돌이켜 보면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뼈아픈 결정이 되었다. 이 지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앗시리아는 이 기회에 군사력이 분산되어 있던 아람과 이스라엘을 손쉽게 제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다도 스스로 앗시리아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

24)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Bustanay Ode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Syro-Ephraimite War Reconsidered”, *Catholic Biblical Quarterly* 34 (1972), 153-165.

25) 이러한 외교적 결단의 신학적 함의에 대해서는 Jon D. Levenson, *Sinai and Zion: An Entry into the Jewish Bible* (Minneapolis: Winston, 1985), 156-161.

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유다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상황에서 사마리아의 몰락 후 북이스라엘 난민이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내려왔다고 가정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멸망의 결정적 단초를 제공한 양숙의 품으로 제 발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북이스라엘 이주민 가설은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정치적 상황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특별히 이들의 정치적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앗시리아와의 관계에서 난민 유입 가설을 살펴보면 이 가설의 허점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앗시리아는 유다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을 함락시켰다. 그런데 앗시리아의 전리품인 이스라엘의 인적 자원이, 그것도 예언자, 서기관 등을 포함한 고급 인력이 유다로 탈출하였다는 것은 향후 반란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앗시리아 입장에서 쉽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종주권 계약을 맺은 봉신은 단순히 주군과 일 대 일의 관계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군에 대한 어떠한 위해를 가하는 움직임에 대해 보고하고 주군에 대해 반역을 저지른 역적이 자국 내로 피신했을 때 황제에게 인도해야 하는 모종의 범죄자 인도 협정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²⁶⁾ 이에 대해 레벤슨(Jon D. Levenson)은 히브리 성경의 계약 사상에도 이러한 면이 관찰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신 13:10 참조), “히타이트의 조약과 성서의 계약은 공히 봉신으로 하여금 자신만 계약 조항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 관계를 방해하거나 악화시키는 어떠한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한다.²⁷⁾ 따라서 이제 막 앗시리아의 봉신으로 전락한 유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새로운 주군에 대항해 반역 행위를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질 수

26)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Moshe Weinfeld,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stic School* (Oxford: Clarendon, 1972), 91-100.

27) Levenson, *위클리*, 66.

있었다.²⁸⁾ 때문에 앗시리아의 봉신으로서 히스기야가 종주에게 패퇴한 이스라엘 난민을 받아들일 입장이 아니었다. 유다의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생존이었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던 북이스라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앗시리아에게 동맹을 요청하였는데 더욱 강력한 앗시리아의 위협을 자초할 우를 범하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²⁹⁾

뿐만 아니라, 굳이 앗시리아와의 관계에서 살펴보지 않아도 자급자족의 농경사회 구조 안에서 소규모 도시인 예루살렘이 대규모의 난민의 갑작스런 유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³⁰⁾ 대규모 난민의 유입은 수급불균형을 유발하여 예루살렘의 경제 체제의 붕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하여 유다를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핑켈슈타인은 이에 대해 당시 유다가 밀려들어오는 이스라엘 난민을 거부할 만큼 정치적 힘이 없었다고 반박하지만,³¹⁾ 이는 설득력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 기욤은 “핑켈슈타인은 당시 유다가 난민들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존재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모두 먹여 살릴 만큼 풍요했다고 주장해야만 한다.”³²⁾라며 그의 주장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였다.

28) 이에 대해서는 나이만의 자세한 논증을 참조하라. Na'aman, 윗글 (2007), 31-35. 이와 다른 의견으로는 한 동구, 『신명기 개혁운동의 역사』(서울: 도서출판 B&A, 2004).

29) 핑켈슈타인(윗글 [2008], 506.)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스라엘의 전쟁 난민을 황제에 대한 반역자와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지도층이나 고위층이 아닌 국경 지대와 주변 산악지대에 살던 농민들이 전쟁의 위협 앞에서 유다로 도망했을 가능성은 나이만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Na'aman, 윗글 [2007], 36) 여전히 난민 가설을 방어한다. 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핑켈슈타인은 여전히 히스기야가 이들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축조하였다는 사실을 설명해 내기 어렵다. 당시 유다의 정세를 고려해 볼 때 유다는 그런 물질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유다로 넘어온 이들이 대부분 농민들이었다면 그들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주요 전승이 전래되었고 그들과의 융합을 위해 유다가 큰 종교적 변화를 겪었다는 그의 주장은 상충하는 듯 보인다. 핑켈슈타인을 포함한 학자들이 난민 가설을 지지하는 이유는 인구의 단순 유입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이후 남유다에 끼쳤을 영향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 단지 소수의 농민들만 피난 왔다고 한다면 이들의 유입이 향후 유다사회의 발전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30) Na'aman, 윗글 (2007), 36.

31) Finkelstein, 윗글 (2008), 507.

32) Guillaume, 윗글, 199.

이는 예루살렘의 확장을 난민 유입이 아닌 자연스런 경제 성장의 결과로 보는 이론에 설득력을 더하는 이유가 된다.

마지막으로 기욤은 ‘전쟁 난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극히 현대적 개념임을 지적하였다.³³⁾ 전쟁 난민이라는 개념이 현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선 과거 농민들이 전쟁 발발의 위협 앞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동력과 정보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데 있다. 기동력의 결여는 이동시간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필요한 물자축적의 필요를 증대시키며 결과적으로 또다시 기동성을 저하시킨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위기 앞에서 농민들이 삶의 터전인 땅을 버리고 이주를 선택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은 과거 농경사회에서 땅이 지니고 있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농민이 땅을 버린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것과 같다. 유다로 도망한다고 해서 생존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굶주림이 앗시리아보다 더 큰 위협이었다.”³⁴⁾는 기욤의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성급히 도망하기보다 땅에 남아 새로운 지배자의 선처를 기다리는 생존 확률을 높이는 나은 선택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논의를 정리해 보자. 여기서 필자는 북왕국 난민의 유입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실 난민 유입의 부재를 증명할 근거 또한 분명치 않다. 따라서 난민 유입 가설을 대신할 대안을 찾으려는 것도 아니다. 필자의 주장은 단지 학자들 사이에 널리 ‘사실’로 인정되어 온 이 사건이 어떤 실증적 증거 위에 놓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 문헌적 고고학적 자료로부터 추출한 개연성에 근거한 추론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동시에 이 가설은 이스라엘 멸망 직후 유다가 처해있던 정치, 외교적 상황에서 살펴보았을 때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논함에 있어

33) 윌클, 199-201.

34) 윌클, 200.

그 불확실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난민의 유입이 불확실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여기에는 다양한 함의가 뒤따른다. 이 글에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그 중 한 측면, 즉, 성서 문헌의 형성사의 제이론에 던져 주는 의미에 집중하고자 한다.

4. 난민 가설의 무비판적 수용의 문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학자들이 난민 가설을 받아들인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 가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승을 공히 포함하고 있는 본문의 복합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성서 문헌의 형성사를 밝히는데 유용하기 때문이었다. 난민 가설의 매력은 부인할 수 없다. 본문의 복합성이라는 문헌적 문제와 북왕국 난민의 유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역사적 추론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필자는 이 가능성의 문을 닫아놓으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북왕국 난민 유입 가설을 당연시했을 때, 특히 위의 논의를 통해 드러난 이 사건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미루어 보았을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밝히고 그런 부작용 사이에 묻혀버린 또 다른 가능성을 조명하려 한다.

구약성경의 최종 본문이 남과 북의 전승을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할 학자는 없다. 하지만 ‘어떻게’ 이스라엘 전승이 남유다 편집자에게 가용하게 되었는지는 다른 문제이다. 이 질문에는 사실 다양한 답변의 가능성이 있다. 우선 난민 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의 입장처럼 이스라엘 유민을 통해 두루마리들을 ‘전수’ 받았을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도 있다. 남유다인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이들 문서를 ‘입수’ 하였을 수 있다. 이를테면 나아만은 요시야가 벨엘을 파괴하였을 때 성소에 보관되어 있던 문헌을

탈취해 왔을 것이라 가정한다.³⁵⁾ 요시야 시대에 성전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두루마리에 얽힌 기사(왕하 22-23장) 또한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 문헌을 입수하게 된 경위에 대한 하나의 일화일 수 있다. 물론 이들은 모두 가설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수받았다고 하는 것과 입수했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처럼 들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둘은 때에 따라 미묘하지만 큰 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서 상태가 아닌 구전전승으로 엘리야/엘리사의 이야기와 호세아의 예언이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등이 예루살렘의 저자 거리에 이미 잘 알려져 있었을 수도 있다. 난민 가설을 통해 북이스라엘 전승의 유입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그 근거에 문서전승이 실질적 ‘접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암묵적 가정이 있다.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우월한 사회는 보다 작은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유다는 오랜 기간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있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문화적 종교적 영향을 받아 왔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향력 있는 전승들이 자연스럽게 유다에 전해졌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런 세 가지 가능성은 단지 피상적인 관찰에 의거할 뿐, 실제로는 얼마든지 더 복잡한 각본이 있었을 수 있다. 또한 엄밀히 말해 이들 세 가능성이 상호 배타적이지도 않다. 이들이 어느 정도 공존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들 중 어느 것에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 밝히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도리어 이 문제는 어떤 확실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임을 밝히는 것이 필자의 의도이다.

그런 점에서 북이스라엘의 난민이 유입해 들어왔다는 가설을 기정사실화 했을 때 야기되는 문제 중 대표적인 것은 북이스라엘 전승이 남유다에 의해 전달되는 혹은 받아들여지는 과정 배후의 의도와 결과에 얽힌 수많은

35) Nadav Na'aman, "The Israelite-Judahite Struggle for the Patrimony of Ancient Israel", *Biblica* 91 (2010), 20

은 불확실성을 간과한 채 북이스라엘의 ‘능동적’ 전수와 남유다의 ‘수동적’ 수용의 구도로 시안을 단순화하는데 있다 하겠다. 마치 달리기 경주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자에게 순서를 넘겨주듯 북이스라엘은 멸망 후 자신들이 보존해 온 전승들을 살아남은 유다에게 넘겨주었고, 그 뒤로 유다에 의해 야훼 종교의 유산은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치적으로 독립적 삶을 살았던 200년의 시기가 무색할 정도로, 앗시리아의 위협 앞에서 일어났던 치열한 외교전이 한낱 부질없는 과거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듯이 학자들은 이 시기의 역사에 대해 얼버무린다. 이런 경향의 대표적인 예를 신명기의 기원과 발전을 북이스라엘에서 건너 온 예언 집단에게서 찾은 니콜슨(Ernest Nicholson)의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신명기는 기원전 721년 북왕국 멸망 후 남으로 도망해 온 예언 집단에서 유래하였다. 이들은 유다에서 자신들의 고대 전승을 유다의 지도자들에 의해 실행될 수 있도록 개혁과 부흥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그들에게 달려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³⁶⁾ 하지만 앞서 살핀 유다와 이스라엘의 복잡 미묘한 실질 정세를 고려했을 때 북왕국 예언자들의 후손이 다른 곳도 아니고 자신들과 경쟁관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낭만적으로 보인다.³⁷⁾ 특히 요시아의 개혁 프로그램이 북이스라엘 종교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벰엘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등 때때로 극단적 반이스라엘 정서를 표

36) Ernest W. Nicholson, *Deuteronomy and Tradi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7), 94.

37) 설사 북왕국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성소 벰엘 등 북왕국의 성지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대망했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 점에서 현재 많은 학자들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 벰엘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난 일종의 부흥 움직임에 대해 재고하는 흐름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테면, Davies, 윗글: Knaut, 윗글: Joseph Blenkinsopp, “Bethel in the Neo-Babylonian Period”, Oded Lipschits and Joseph Blenkinsopp(ed.), *Judah and the Judeans in the Neo-Babylonian Period*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03), 93-107; Jules Gomes, *The Sanctuary of Bethel and the Configuration of Israelite Identity* (BZAW 368; Berlin: de Gruyter, 2006); Melanie Köhlmoos, *Bet-El—Erinnerungen an eine Stadt: Perspektiven der alttestamentlichen Bet-El-Überlieferung* (FAT 49; Tübingen: Mohr Siebeck, 2006).

출한 강력한 유다 민족주의의 발현이었다는 점에서 이런 가정은 설득력이 부족하다.³⁸⁾

물론 니콜슨의 이론은 현재 학계에서 지나간 학설에 불과하다. 여기서 니콜슨을 거론한 것은 그의 이론을 논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논증이 북이스라엘 멸망 직후 남유다의 상황을 묘사함에 있어 양국의 경쟁관계에 대해 놀랍도록 무감각한 학자들의 성향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성향이 비단 니콜슨의 이론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전승이 혼합된 본문의 형성사를 다루는 여타 이론에서도 흔히 발견된다는 점이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려 한다. 오경의 형성사에서 북에서 기원한 E 자료와 J 자료는 편집자(REJ)에 의해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 후 북이스라엘 난민들이 가져 온 E 자료가 남유다의 J와 수합되어 'JE 자료'를 형성했다고 여겨져 왔다.³⁹⁾ 한 마디로 JE 가설의 배경으로 지목된 것이 또 다른 가설인 북왕국 난민의 유입이었다. 문제는 이 가설 배후에도 어떠한 실질적 증거도 없다는 데에 있다. 최근 이 가설은 일군의 학자들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 그 근거의 빈약성이 잘 드러났다.⁴⁰⁾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유다에서 J 자료와 E 자료가 하나로 통합되지 않았다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종본문에 북이스라엘 전승이 포함되어 있기에 북왕국 전승이⁴¹⁾ 남유다의 저자/편집자에게 가용하였다는 점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다만 두 평행본문이 일종의 표준본문을 생산하기 위해 'JE'의

38) 신정균, "아시아의 성전 수축 : 아시아의 개혁과 관련한 역사적 접근", 『구약논단』 5집(1998년 10월), 51-78; "히스기야의 제의 단일화", 『구약논단』 15집(2003년 10월), 27-64 참조.

39) Richard Elliot Friedman, *Who Wrote the Bible* (New York: Summit Books, 1987) 87.

40) Joel S. Baden, *J, E, and the Redaction of the Pentateuch* (FAT 68; Tübingen: Mohr Siebeck, 2009). 이 입장에 대해서는 최근 출간된 다른 논문에서 보다 깊이 있게 다루었다. 홍국평, "소위 '신자라비평'에 대한 비판적 소고", 『장신논단』 44집 2호 (2012년 7월), 151-172.

41) 물론 여기서 북이스라엘 전승이 전통적인 엘로힘 자료와 동일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Koog P. Hong, "Abraham, Genesis 20-22, and the Northern Elohist", *Biblica*, forthcoming.

모습으로 종합되었다는 자료비평적 모델보다는 북이스라엘의 전승이 남유다 저자/편집자에 의해 편집적으로 수용되고 확장되고 재해석되었다는 편집사 모델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된다. 요컨대, 니콜슨이나 JE 가설을 밝히려는 오경의 자료비평가들의 공통점은 북이스라엘 전승이 남유다인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라 가정하면서 이 과정에서 일어났을 수 있는 남유다인의 수용과 그 배후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간과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전승의 전달자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수용자의 입장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통로로 북이스라엘의 전승이 가용하게 되었든 간에 중요한 점은 같은 이야기나 전승이 남유다인들에 의해 ‘수용’된 모습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도하고 받아들인 방식과 사뭇 다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 유민이 자신들의 전승을 전수해 주었다고 해도 엄밀히 말해 유다가 그것을 받아들였으리라는 보장은 없고 그대로 수용해야 할 이유도 없었다. 받아들였다 해도 북이스라엘인들이 의도한 방식이 아닌 ‘유다의 방식’에 따라 수용했을 수 있다. 이 둘의 차이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⁴²⁾ 특히 북이스라엘이 갑작스레 역사의 장에서 사라지고 남유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살아남았을 때, 남유다 안에서 이들 북이스라엘 전승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남유다의 입장에서 재해석되고 재

42) 이렇게 남유다의 역할을 간과하게 된 것은 방법론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즉, 북이스라엘 전승을 애초에 생산해 낸 ‘저자’의 의도가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그 전승의 ‘독자’로서 남유다의 편집자들의 ‘수용’의 측면이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고 표현할 수 있다. 물론 편집자로서 남유다인의 편집의도에 대해 학자들은 논의해 왔다. 단순한 전달자가 아닌 저자요 창조적 신학자였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이전 시대보다 발전된 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 편집자는 저자요 신학자이기 이전에 ‘독자’였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북이스라엘의 전승을 수용한 독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서 독특하게 수용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현재의 모습의 편집이 가능하였다는 점이다. 수용미학에 대해서는 천사무엘, “수용미학적 구약성서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1집 (2001년), 5-26를 참조하라. 역사비평 안에서 독자 중심 읽기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Helmut Utschneider, “Text—Reader—Author: Towards a Theory of Exegesis: Some European Viewpoints”, *Journal of Hebrew Scriptures* 1 (1996), 12-14를 참조하라.

창조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들 이야기의 창조적 재해석은 유다인들로 하여금 야훼의 ‘버림을 받은’ 이스라엘과 달리 ‘선택’을 받은 자신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강화하는 일종의 도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자기인식 배후에 수 세기 동안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열강의 압제 하에 지냈던 약소국 유다의 한(恨)과, 같은 하나님 야훼를 섬기는 이스라엘 문명권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자 했던 유다의 열망이 있었을 수 있다.⁴³⁾ 북왕국 난민 가설을 당연시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 중 하나는 이러한 남유다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5. 결론

이 글에서 우리는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북이스라엘 난민 가설의 문제를 되짚어보고 이 가설의 불확실성이 성서 문헌의 형성사에 끼치는 함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예루살렘이 확장되었다는 고고학적 근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 확장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는 분명치 않음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북이스라엘 멸망 직후 유다가 처한 정치적 상황은 난민의 유입을 기정사실화 할 만큼 단순하지 않았음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난민 가설의 문제를 난민 유입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 가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적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차적 폐해에서 찾아보려 하였다.

무엇보다 사마리아 멸망 후 유다에서 일어난 일련의 변화들 배후에 도사리고 있었을 수 있는 유다인들의 미묘한 정서에 대해 귀 기울이지 못하

43) 대표적인 경우가, Na'aman, 윗글 (2010); Koog P. Hong, "The Deceptive Pen of Scribes: Judean Reworking of the Bethel Tradition as a Program for Assuming Israelite Identity", *Biblica* 92 (2011), 427-441.

게 하였다. 유다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전승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그 전승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하여 현재 구약성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유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스라엘 이해를 발전시켰다. 그리고 그 중심에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유다왕국 시대에 일어난 유다인들의 인식변화가 있었을 수 있다. 필자의 주장은 북왕국 난민 가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학자들은 전승자의 입장에 집중한 나머지 이를 받아들인 유다의 입장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필자는 북왕국 유민의 유입과 남유다인들의 북이스라엘 전승의 창조적 수용이 상호배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북왕국 난민 가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것이 지금까지 학자들이 남유다인들의 창조적 수용의 측면을 간과하게 하는데 일조하였음을 지적하려 할 따름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진 후 앗시리아의 위협에서 살아남은 유다왕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은 뒤 이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빌론 유수라는 엄청난 역사적 신학적 논제의 그늘에 가려 구약 연구사에서 흔히 간과되어 온 질문이다. 사마리아의 멸망 후 유다에서 일어났을 수 있는 자아인식의 격변에 대해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이들이 수행한 이전 전승의 수용과 재해석의 과정을 그들의 억눌렀던 한의 표출이요 새로운 자아의 생성의 결과와 방편으로 이해한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물론 성서 본문 형성의 역사를 이해하는 색다른 시각을 제공해 줄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 참고문헌 목록

신정균, “요시아의 성전 수축 : 요시아의 개혁과 관련한 역사적 접근”, 「구약논단」5집 (1998년 10월), 51-78.

_____, “히스기야의 제의 단일화”, 『구약논단』15집 (2003년 10월), 27-64.

유윤중, “고대 이스라엘 역사 찾기와 고고학: 수정주의자와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34집(2004년 7월), 105-128.

천사무엘, “수용미학적 구약성서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21집 (2001년), 5-26.

한동구, 『신명기 개혁운동의 역사』(서울: 도서출판 B&A, 2004).

홍국평, “소위 ‘신자료비평’에 대한 비판적 소고”, 『장신논단』44집 (2012년 7월), 151-172.

Alt, Albrecht, “Die Heimat des Deuteronomium”, *Kleine Schriften zur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vol. 2; München: C.H. Beck, 1953).

Avigad, Nahman, *Discovering Jerusalem* (Nashville: Thomas Nelson, 1983).

Blenkinsopp, Joseph, “Bethel in the Neo-Babylonian Period”, Oded Lipschits and Joseph Blenkinsopp(ed.), *Judah and the Judeans in the Neo-Babylonian Period*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03), 93-107.

Broshi, Magen, “Expansion of Jerusalem in the Reigns of Hezekiah and Manasseh”, *Israel Exploration Journal* 24 (1974), 21-26.

Collins, John Joseph, *Introduction to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2004).

Davies, Philip R., *The Origins of Biblical Israel*. (LHBOTS 485; New York: T&T Clark, 2007).

Finkelstein, Israel, “The Settlement History of Jerusalem in the Eighth and Seventh Century BC”, *Revue biblique* 115 (2008), 499-515.

_____, “Saul, Benjamin and the Emergence of ‘Biblical Israel’ :

- An Alternative View”,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23 (2011), 348–367.
- Finkelstein, Israel, and Neil Asher Silberman, *The Bible Unearthed: Archaeology’s New Vision of Ancient Israel and the Origin of Its Sacred Texts* (New York: Free Press, 2001).
- _____, “Temple and Dynasty: Hezekiah, the Remaking of Judah and the Rise of the Pan-Israelite Ideology”,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0 (2006), 259–285.
- _____, *David and Solomon: In Search of the Bible’s Sacred Kings and the Roots of the Western Tradition* (New York: Free Press, 2006).
- Friedman, Richard Elliot, *Who Wrote the Bible?* (New York: Summit Books, 1987).
- Geva, Hillel(ed.), *Jewish Quarter Excavations in the Old City of Jerusalem: Conducted by Nahman Avigad, 1969–1982* (vol. 1;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00).
- Gomes, Jules, *The Sanctuary of Bethel and the Configuration of Israelite Identity* (BZAW 368. Berlin: de Gruyter, 2006).
- Guillaume, Philippe, “Jerusalem 720–705 BCE: No Flood of Israelite Refugees”, *Scandinavian Journal of the Old Testament* 22 (2008), 195–211.
- Hong, Koog P., “The Deceptive Pen of Scribes: Judean Reworking of the Bethel Tradition as a Program for Assuming Israelite Identity”, *Biblica* 92 (2011), 427–441.
- _____, “Abraham, Genesis 20–22, and the Northern Elohist”, *Biblica*, forthcoming.
- Knauf, Ernst Axel, “Bethel: The Israelite Impact on Judean Language

- and Literature”, Oded Lipschits and Manfred Oeming(ed.), *Judah and the Judeans in the Persian Period*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06), 291–349.
- Köhlmoos, Melanie, *Bet-El—Erinnerungen an eine Stadt: Perspektiven der alttestamentlichen Bet-El-Überlieferung* (FAT 49; Tübingen: Mohr Siebeck, 2006).
- Lemche, Niels Peter, “Did a Reform Like Josiah’s Happen?” Philip R. Davies and Diana V. Edelman(ed.), *The Historian and the Bible: Essays in Honour of Lester L. Grabbe* (LHBOTS 530; New York: T&T Clark, 2010), 11–18.
- Levenson, Jon D., *Sinai and Zion: An Entry into the Jewish Bible*. (Minneapolis: Winston, 1985).
- Na’aman, Nadav, “When and How Did Jerusalem Become a Great City? The Rise of Jerusalem as Judah’s Premier City in the Eighth–Seventh Centuries B.C.E.”,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347 (2007), 21–56.
- _____,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Judah and Jerusalem in the Eighth Century BCE: A Rejoinder”, *Revue biblique* 116 (2009), 321–335.
- _____, “Saul, Benjamin and the Emergence of ‘Biblical Israel’ (part 1)”,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21 (2009), 211–224.
- _____, “The Israelite–Judahite Struggle for the Patrimony of Ancient Israel”, *Biblica* 91 (2010), 1–23.
- Nicholson, Ernest W., *Deuteronomy and Tradi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7).

- Oded, Bustanay,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Syro-Ephraimite War Reconsidered”, *Catholic Biblical Quarterly* 34 (1972), 153–165.
- Shiloh, Yigal, “Jerusalem”, *The New Encyclopedia of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 the Holy Land* (vol. 2;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 Carta, 1993).
- Utzschneider, Helmut, “Text—Reader—Author: Towards a Theory of Exegesis: Some European Viewpoints”, *Journal of Hebrew Scriptures* 1 (1996), 1–22.
- Weinfeld, Moshe,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stic School* (Oxford: Clarendon, 1972).
- _____, *Deuteronomy 1–11: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York: Doubleday, 1991).

검색어

북이스라엘 난민 가설

예루살렘 확장

넓은 성벽

유다와 이스라엘

성서의 형성사

Rethinking the Northern Israelite Refugee Theory

Koog-Pyoung Hong, Ph.D.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Seoul Jangsin University

It has been commonly assumed that a group of northern refugees flooded into Jerusalem after the fall of Samaria (722 BCE) and the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ensuing religious reform in Judah. This essay reconsiders the biblical,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evidence and explores its implications.

The Hebrew Bible is almost entirely silent about any mass immigration from northern Israel to Jerusalem. The archaeological evidence of the expansion of the Jerusalem wall, which does prove a major societal change in Judah around the 8th century BCE, still remains inconclusive in proving the influx of northern refugees. Against the underlying assumption that

www.kci.go.kr

the doomed Israelites would have found refuge in Judah given their ethnic tie, it is pointed out that the realpolitik around Judah and Israel at the wake of the Assyrian threat may not have allowed Hezekiah to accept Israelite refugees.

To question the refugee theory is not to categorically reject the influx of Israelites; it is rather to critically rethink the implications of the ambiguity around this theory. While it is true that the refugee theory helps resolve many difficult questions around the composition history of biblical literature, the efficacy of the theory does not ensure its validity. As the uncritical basis of the theory lays bare, one must reconsider its implications to theories that are dependent upon the refugee theory.

An uncritical acceptance of the refugee theory frequently resulted in a failure to pay attention to a complex dynamic involved in Judean's creative reception and reinterpretation of the old Israelite tradition. It is suggested that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is critical period in which Judah found a new self identity and went through a critical theological revolution, one must pay attention to the subtle dynamic between Judah and Israel at the aftermath of the Assyrian conquest. This will lead into a new way of understanding of the composition history of the texts that were composed or compiled in this period.

Key words

The northern Israelite refugee theory

Jerusalem's expansion

Broad wall

Judah and Israel

Composition history of the Bible

- 투고일: 2012년 6월 20일
- 심사일: 2012년 7월 22일
- 게재 확정일: 2012년 7월 25일

www.kci.go.kr